

17세기 네덜란드 풍속화 속 와인잔, 부유함·유혹의 상징

손관승
인문여행자



페르메이르 작품으로 본 와인 문화
대항해시대 맥주 대신 포도주 즐겨
상인·부유층 일상 음료로 자리잡아
동인도회사, 세계 곳곳서 와인 무역
보르도 메독 지역 포도 농원도 운영

히딩크, 하멜, 요하네스 페르메이르, 반 고흐, 이들은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을까? 와인과 인연 많은 네덜란드인이다. 한국 월드컵 축구의 영웅 히딩크 감독이 샄도 탈보(Talbot)를 즐겨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때 국내에서 이 와인이 인기를 끌기도 했다. 하멜은 1653년 8월 태풍으로 제주도에도착했을 때 출동한 관헌들에게 검붉은색 포도주를 줌으로써 한반도에 최초로 와인을 선물한 서양인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비운의 천재 화가 반 고흐는 가난했던 파리 시절 싸구려 레드 와인을 너무 마셔 위장을 버리고 치아가 상했다는 편지를 동생 데오에게 전했다.

하멜, 한반도에 포도주 처음 들여와
와인과 네덜란드, 얼핏 형용모순처럼 들리지만 네덜란드와 와인의 인연은 깊다. 로마 제국 점령 시절부터 와인 문화를 접했고, 현재도 작은 단위이기 는 하지만 약 170개 포도농원에서 연간 100만 병의 포도주(3분의 2는 화이트 와인)를 생산한다. 그렇 기는 하지만 네덜란드는 오랫동안 주변 벨기에, 덴 마크처럼 와인보다는 맥주에 친숙한 나라였다. 근 세 이전까지 네덜란드 사람들은 물을 마시는 것보 다 양조된 맥주가 훨씬 안전했기에 액체 음식의 한 종류로 여겨왔다. 기록에 남아있는 통계에 따르면 17세기 초 네덜란드의 1인당 연간 맥주 소비는 250-300 l, 게다가 저알콜 맥주는 아동에게 적합하다는 인식이 있을 정도로 맥주는 네덜란드의 일 상 음료였다. 현재도 하이네켄, 암스텔 맥주가 세계 적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황금의 세기라는 17세기로 접어들면서 극적인 전환점이 시작된다. 특히 상인과 부유한 시 민 층을 중심으로 와인은 일상 음료로 점차 자리 잡 게 되는데 풍속화라는 장르를 통해 그 모습을 남긴 대가 바로 요하네스 페르메이르였다. 그는 조선 에 왔던 하멜과 불과 2년 아래의 동시대 인물로 '진 주 귀걸이를 한 소녀', '델프트 풍경' 등의 명작을 남겼으며 렘브란트와 더불어 네덜란드 황금의 17 세기를 빛낸 거장이었다. 약 35점의 작품만 남겼을 정도로 과작의 화가였지만 그 가운데 와인과 관련 된 세 점의 인상적 작품을 남겼다.

첫 번째는 일명 '투쟁이' (The Procuress, 1656 년 작, 독일 드레스덴 알테 마이스터 미술관 소장) 이라는 작품으로 밝은 노란색 옷을 입은 창녀와 그 녀의 가슴을 슬쩍 만지면서 여자의 손에 은전을 쥐 어주는 남자, 이 남자와 창녀의 묘한 거래를 이어주 는 나이든 투쟁이 여자, 그리고 화면 좌측에는 정면 을 바라보고 있는 남자 등 모두 4명이 등장한다. 화 면의 빛을 받는 젊은 창녀는 두 뺨에 홍조를 띠고 있고 손에는 와인잔을 들고 있다. 그 옆으로 델프트 자기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기에 뛰어난 장인의 정 물화 솜씨도 확연하게 된다.

페르메이르의 또 다른 그림 '신사와 와인 마시는 여인' (1660년 작, 베를린 국립회화관 게멜데 겔러 리 소장)은 탁자 위에 와인병을 놓아둔 채 와인 마 시는 여인을 그윽하게 바라보는 한 남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실내에 놓인 가구와 와인으로 남자의 경제력과 신분을 짐작케 한다.

반면 독일 브라운슈바이크에 있는 '와인을 권하 는 남자'는 앞서 베를린 그림과 비슷한 풍경이지만 내용은 완전히 다르다. 이미 술에 취한 듯 묘한 웃 음으로 화면의 정면을 바라보는 젊은 여성과 그녀 에게 와인을 권하는 남성, 그 옆에 의자에 앉아서 모르는 척 탄웃하고 있는 또 다른 남자 등 세 명이 등장한다. 테이블 위의 와인이 담긴 흰색 도자기가



1 페르메이르의 작품. '신사와 와인 마시는 여인' (1660년 작)에서 와인 잔은 유혹과 부유함의 메타포로 묘사돼 있다. 2 화가 페르디난드 블의 '암스테르담 와인 상인회 지도부' 단체 초상화(1663년 작). 3 화가 요하네스 페르메이르가 그린 '투쟁이(The Procuress)' 작품(1656년). [사진 위키미디어]

있고, 남자는 이미 취한 것 같은 여성에게 자꾸 와 인을 권하는 음흉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 그림 속에서도 자기로 만든 포도주 병과 와인 잔은 유혹 과 부유함의 메타포로 묘사돼 있다.

와인잔, 유혹에 대한 경고 메시지도

네덜란드는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에 성 공하고 대항해 시대가 열리면서 최고 번영기를 누리게 되 는 데, 와인잔은 델프트 자기와 더불어 17세기 네덜란드의 경제적 화려함을 상징한다. 깨끗하게 치워진 집안, 튜립 과 하이신스가 꽃혀 있는 꽃 병, 반짝반짝 닭아눔은 은식 기 위에 놓인 빵과 치즈 등은 오직 이 시기 네덜란드와 저 지대 지역에서만 그려진 독 특한 주제이 며 화풍이 었다. 반면

개신교 가운데 가장 엄격한 칼뱅파 신자가 많았던 사회였기에 경계해야 할 풍속의 의미로 해석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근면을 강조하고 사치와 허세, 게 으름을 배격하는 가치관이 시대정신이었으므로 와 인잔은 흥청망청 과소비와 유희에 대한 경고라는 해석이다.

세계 무역의 주도권을 쥐고 있던 17세기 네덜란 드 동인도회사는 일찍부터 와인 무역에도 눈길을 돌렸다. 네덜란드 화가 페르디난드 블의 '암스테르 담 와인 상인회 지도부' 단체 초상화(1663년 작, 뮌헨 알테 피타코텍 미술관 소장)가 바로 당시 네 델란드의 와인 무역 파워를 상징한다. 프랑스의 보 르도와 부르고뉴, 독일의 라인지역 등 가까운 곳뿐 아니라 스페인의 말라가, 이탈리아의 마르살라, 그 리스, 남아공 등 지구촌에서 생산되는 와인을 싣고 왔으며 암스테르담뿐 아니라 로테르담이 주요 와인 수입항구 역할을 담당했다. 로테르담은 라인강과 바다가 만나는 입구에 위치하였기 때문이다.

네덜란드 상인들은 당시 최고의 와인 시장인 런 단에 판매할 고급 와인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르도 지역에 눈독을 들였다. 일찍부터 물 관리와 낮은 땅

간척에 탁월한 재능을 발휘했던 네덜란드 토목 전 문가들은 보르도, 특히 메독 지방의 질퍽한 늪지대 를 최고급 포도 농원으로 바꿔놓았다. 이 과정을 통 해 메독 지역과 명품 와인의 상징 마고(Margaux) 마을의 명성이 시작되었다. 지금도 마고 지역의 샄도 지스쿠르, 샄도 뒤 테르르르네 네덜란드인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페르메이르 작품 세 점 속에서 와인의 모티브는 시대정신의 반영인가 아니면 인간의 본능과 성적인 유혹을 강조한 결과? 화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 그 깊은 뜻을 알 수 없어 문맹자의 답 답함 같은 걸 느낄 때면 나는 그 핑계로 빨간 물 한 잔을 다시 찾게 된다.

〈광주일보와 중앙 SUNDAY 제휴 기사입니다〉

손관승 MBC 베를린특파원과 iMBC 대표이사를 지냈으며, '리더를 위한 하멜 오디세이아', '고테와 함께한 이탈리아 여행' 등 여러 책을 썼다.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1982 - 2022

국제보청기 40주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제보청기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